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음악 분야
- 회의 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10:30~14:00
 - 2024년 12월 17일(화) 11:00~18:30
- 회의 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서지혜, 윤승현, 왕치선, 이신우, 이진원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공연제작 지원 사업으로, '동시대성', '다양성', '수월성', 그리고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공연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2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선정된 작품에 2,5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며, 실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품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12월 1일 진행된 1차 서류 심의에서 18건의 지원신청 작품을 검토한 후, 12건의 작품이 인터뷰 심의에 선정되었고, 12월 17일의 인터뷰 심의를 거쳐 8건의 작품이 최종적으로 실연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는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평가 기준은 크게 작품성(창작 의도 및 소재, 작품의 구성, 연출 또는 안무, 무대 디자인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참여 인력의 적합성, 예산과 일정의 적정성, 관객 개발을 위한 노력), 기대효과(유통 및 확산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작품의 관객 확대 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점은 창작자가 음악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시대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실연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공연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각 지원 작품의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작품의 실연 가능성과 프로덕션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관객 확장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게 지적된 점은, 지원자(단체)가 프로젝트 내에 충분한 기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창작자가 기획을 병행하든 혹은 전문기획자의 밀착 협력이 있든, 창작품을 실연하여 사회로 소통하는데에 필요한 역량과 역할이 계획서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획된 공연의 전략성이 창작품의 차별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객 개발에 대한 전략에서 좀

더 참신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작품의 공연 기획 단계에서 타깃 관객을 정의하고, 차별적 홍보 전략과 혁신적인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 결과, 8건의 작품이 올해의신작(후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순수 음악을 중심으로 한 기획부터, 영상, 무용, 미디어 아트, 공간 음향, 극적 요소 등 다양한 예술적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 공연에 대한 동시대적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작품은 음악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공연의 외적인 요소들에 더 집중한 경향을 보여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시대성을 담아내려는 창작자들의 의도가 돋보였고, 다양한 창작적 접근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연예술의 창작에서 '동시대성',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균형 있게 갖춘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일화될 수 없으며,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가 최종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8개의 지원신청 작품이 모두 무대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더 많은 작품을 선정하지 못한 점은 심의위원으로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각 작품이 다른 기회를 통해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최전방에서 이 시대의 예술을 지켜가며 키워가려는 창작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창작품들이 이 사업을 통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총평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을 고민하며 이번 사업에 지원해 주신 모든 창작자 분들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